

3. 조계산지역의 불전·불화

왜란으로 불에 타버린 건물이 겨우 중건되었으나 세월의 흐름과 화재로 인해 또다시 깎터미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18~19세기에 조계산지역의 사찰에는 중창불사가 이어졌다. 이러한 중창불사와 관련되어 사찰의 장엄수식과 불교신앙의 변화로 많은 불전과 불화가 제작되었다. 이 시기에 다수 제작된 불전과 불화들을 통해서 불교신앙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불교는 고려시대의 귀족적인 신앙 형태에서 벗어나 민간신앙적인 성격을 한층 강하게 띠면서 한국적인 불교로 변화였다. 사찰 내에는 산신각이나 칠성각 등 민간신앙적인 성격의 전각이 건립되었고, 이와 함께 기복과 영가천도를 위한 명부전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각 전각에 봉안되는 불화도 많이 제작되었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국내의 정치적 혼란과 함께 왜란·호란 등의 양란을 치르면서 현세에 대한 불안감과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에서의 도피 욕구 등이 내세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열망은 곧 지옥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생전에 미리 추선공양을 하고 재를 올려 복을 닦음으로써 사후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면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유명교주인 지장보살과 시왕에 대한 신앙이 크게 성행하였고 이에 따라 시왕 또한 많이 제작되었다.¹⁾

왜란 이후 전란으로 소실된 사찰이 새롭게 중건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찰에 명부전이 건립되었다. 이에 따라 명부전을 중심으로 불교적인 추선불사가 이루어졌다. 당시 명부전의 조성 상황은 1672년에 쓰여진 「연등사사적기(燃燈寺事蹟記)」에 “산이 있는 곳에는 절과 승려가 있고 시왕과 명부전이 없는 곳이 없다.”는 기록이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다. 전란으로 인한 사찰경제의 피해를 작은 절에서는 망자에 대한 상제례와 탁발(托鉢), 기도에 대한 보수로 간신히 유지해나갔다. 이 사실에서 명부전과 천도의례와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읊는 고성염불의 풍조가 널리 성행하면서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대중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아미타 정토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지장보살과 시왕에 대한 신앙이 널리 성행하게 되었다.²⁾ 1723년에 편찬된 불교의례를 집대성한 「범음집(梵音集)」이 주로 영혼천도의례(靈魂薦度儀禮)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당시에 망자천도의례가 얼마나 성행하였는가를 짐작케 해준다.³⁾

효종~숙종대에 이르는 기간에 조성된 불화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노사나불 포함)가 1/3 가량으로 제일 많으며, 「아미타도(阿彌陀圖)」·「비로자나삼신불화」·「팔상도(八相圖)」·「감로왕도(甘露王圖)」·「오십삼불도(五十三佛圖)」·「칠불도(七佛圖)」·「삼장보살도(三藏菩薩圖)」·「칠성도(七星圖)」 기타 등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법화경과 아미타경, 화엄경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의 신앙경향과도 일치하는데 특히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경향을 도상화한 「영산회상도」가 많이 만들어졌다. 조선 초기부터 면면이 이어온 법화신앙에 의해 임진왜란 이후에도 석가모니를 주존으로 하는 「영산회상도」가 다수 조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1) 김정희, 「한국의 명부신앙」,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150~151쪽.

2) 김정희, 「조선시대 명부전 불화의 의의」,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421쪽.

3) 洪潤植, 「朝鮮後期 佛教의 信仰儀禮와 民衆佛教」, 『韓國佛教史의 研究』, 敎文社, 1988, 313~314쪽.

괘불은 야외에서 법회를 행할 때 불화를 본존으로 하여 예배하는 특수한 용도의 불화인데, 대법회 때나 괘불대에 걸어 사용되었다. 1600~1700년대에 걸쳐 대규모의 괘불이 많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야외 법회나 대규모 법회가 자주 개최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 왜 이 시기에 이와 같은 대규모 야외 법회가 많아졌을까 하는 것은 큰 의문이다. 첫째로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 대규모의 전쟁으로 죽은 부모형제나 친척들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사십구재, 천도재, 수록재 등의 망자천도의례를 행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주고혼(無主孤魂)을 위하여 지내는 수록재는 특정한 대상이 없이 수많은 영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괘불을 걸어놓고 재를 지냈던 것으로 이해된다.

두번째로는 현종연간에 홍수와 기근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등 폐해가 있었다. 이와 같이 괘불이 조성되는 계기는 전쟁의 후유증과 대기근 등의 재해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서민들이 재를 지내 죽은 자의 명복을 빌고 불안하고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대규모의 괘불불사는 참여하는 시주자나 연화질(緣化秩)의 숫자도 일반 불화에 비해 많은데, 그것은 제작도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⁵⁾

한편 17세기 후반 불교교단은 사회 전반에 걸쳐 사유재산제가 실시되면서 1657년(효종 8)에는 무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승려에게도 전답의 사유가 인정되어 분재의 기준에 따라 전답을 전수받을 수 있게 되었다.⁶⁾ 1674년(현종 15) 삼남지역의 대기근 때 부족한 국가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승려들에게 가선대부, 통정대부 등 공명첩을 발행한 사실은 승려들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었음을 말해주는 좋은 예이다. 또한 승려들은 사유재산제가 인정되기 시작한 17세기 후반부터는 궁핍한 사원경제를 위해 감계를 조직하여 보사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괘불의 화기에 스님들이 시주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해주는 것이다.⁷⁾

한편 조계산지역 불화는 18세기에는 대체로 각 계열의 불화가 비교적 비슷하게 제작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아미타불화나 신중화 계열의 불화 제작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이것은 조

4) 金廷禧, 「孝·肅宗代の 佛敎繪畫」, 講座 美術史』6, 1994, 13~14쪽.

5) 金正희, 앞의 논문, 1996, 14~15쪽.

6) 李載昌, 「朝鮮時代 僧侶 甲契의 研究」, 佛敎學報』13, 1976, 2~13쪽.

7) 金正희, 앞의 논문, 1996, 16쪽.

조계산지역의 불화

소장처	여래화 계열	보살화 계열	신중화 계열	나한·조사 계열
송광사	석가오존도(1724) 영산회상도(1725) 53불도(1725) 팔상도(1725) 약사회상도(미상) 화엄경변상도(1770) 석가모니불화(1835) 아미타불화(1847) 아미타불화(1880) 아미타불화(1904)	지장보살화(1870) 지장보살화(1870) 지장보살화(1879)	제석범천화 (1725) 신중화(1766) 신중화(1801) 신중화(1823) 신중화(1828) 신중화(1880) 칠성화(1867) 산신화(1858) 산신화(1899) 독성화(1847) 독성화(1907)	16나한도(1725) 보조국사진영(1780) 진각국사진영(1780) 정혜국사진영(1780)
선암사	53불도(1702) 아미타불화(1751) 괘불화(1753) 영산회상도(1765) 화엄경변상도(1780) 감로왕도(1736) 감로왕도(1736) 삼세불화(1802) 아미타불화(1835) 아미타불화(1856) 아미타불화(1860) 비로자나불화(1869) 삼세불화(1898)	지장보살화(1741) 지장보살화(1796) 지장보살화(1841) 지장보살화(1849) 삼장보살화(1849)	현왕화(1730) 제석화(1753) 신중화(1795) 신중화(1802) 신중화(1812) 신중화(1860) 신중화(1879) 칠성화(1854) 칠성화(1895) 산신화(1847) 산신화(1856) 독성화(1891)	33조사도(1753)
전남대 박물관			천룡화(1702)	
동화사	석가삼존도(미상)			
송광암		삼장보살화(미상)		
향림사	석가오존도(미상)			
정혜사	아미타불화(미상)			
대승사			칠성화(1888)	
금탑사	아미타불화(1847)			
수도암		지장보살화(1860)	칠성화(1860)	

조계산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화사(畫師)는 18세기에는 사신(思信), 의겸(義謙)－공척(巨陟),

8) 張姬正, 「18·19세기 曹溪山地域 佛畫研究」, 第39回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1996.

비현(丕玄)-쾌윤(快允) 등이 주도했으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도일(度鎰)-천여(天如)-취선(就善)-묘영(妙英)-천희(天禧), 익찬(益贊), 내원(乃圓) 등이 대표적으로 활동하였다.⁹⁾ 특히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금파도일의 화맥을 이은 선암사 승려 금암천여(1792~1878)는 19세기 중엽에 풍계현정파의 내원·익찬과 더불어 전라도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화명을 날렸던 인물이다. 현재 선암사에 남아 있는 천여의 「진경도」에는 초의의순의 찬문 끝에 청허휴정하 중관해안계 물암의 제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그가 물암의 법맥을 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천여는 팔도총림의 불사에 응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전답을 사들여 불전에 헌납했고, 85세가 되어서도 500리를 걸어 불사를 했던 도행자이다. 그의 법은 수성일예가 전수했으며, 그림은 도한·채중을 비롯 여러 사람이 이어받았는데, 이들 문하생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전라도지역에서 가장 번성했던 화사집단을 형성했다. 천여의 직계는 용원기연·운파취선·용반천희로 이어졌는데, 무위사·향림사 지역에서 활동했던 취선(1873~1890년에 활동)에 이르러 가장 번창하였고, 호향묘영(성일)·두삼·천희 등 각각의 작은 화맥을 형성한 화승들이 배출되었다.

이들 중 운파취선과 용반천희의 관계는 비단 그림뿐만 아니라 법맥에서도 사제지간이었다. 송광사 부휴선수하 6세인 풍암세찰파(楓巖世察派) 벽담행인 계열로서 부휴하 10세인 운파취선의 법맥을 바로 용반천희가 이은 것이다. 또한 천희의 화맥 중 연파화인은 같은 세찰파 묵암최눌(默庵最訥) 계열의 부휴하 14세로서 옹호덕운의 법을 계승하였으므로 화악평삼이 세찰파의 응암낭윤을 이었다. 이들은 모두 송광사 부휴선수의 법사가 되는 것이다.

천여의 남아 있는 그림 중 선암사 「산신도」와 같은 시기에 제작된 서운도순의 송광사 「산신도」는 거의 똑같은 그림이어서, 이들 두 파가 친분관계 외에도 화본(畵本)까지 같이 쓰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법계도는 달라도 그림은 본래 한 원류에서 출발했음이 분명하다.¹⁰⁾

9) 張姬正, 위의 논문.

10) 金岩天如의 活動에 대해서는 이계표, 「선암사의 승려」, 『선암사』, 남도불교문화연구회, 1992, 45~46쪽. 특히 畵師로서의 活動에 대한 서술은 安貴淑, 「朝鮮後期 佛畵僧의 系譜와 義謙比丘에 관한 연구」上, 『미술사연구』 제8호, 1994를 참고한 것이다.